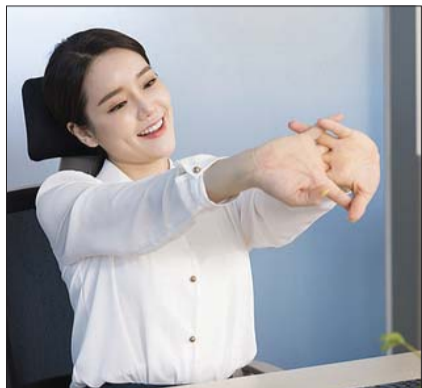


보험사, 헬스케어 블루오션 '페뎠테크' 시장 공략

여성 건강관리 수요 급증에 2027년 페뎠테크 시장 79조 전망 업계, 여성 위한 마케팅 확대 DB생명, 여성전용 상품 출시 한화손보 페뎠테크연구소 설립



여성 건강관리 수요 급증으로 페뎠테크 산업 규모가 확대돼 보험사들이 여성 특화 상품·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유투이미지

보험사들이 여성 전문 상품·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여심 잡기에 나섰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건강관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건강 솔루션에 초점을 둔 '페뎠테크(femtech)'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페뎠테크 시장 성장세에 보험사들은 여성보험 마케팅을 확장하고 있다. 페뎠테크(femtech)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상품,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DB생명은 지난 1일 여성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여성 전용 건강보험 '(무)백년전구 레이디케어 암보험'을 출시했다.

여성의 사전적 건강관리에 집중해 암보험을 기획했다. 여성 중대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조 질환도 보장 받을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여성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에 집중했다"며 "여성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출시했다"고 말했다.

KDB생명도 지난 1일 여성 맞춤 건강보험인 '(무)원하던 여성건강보험(갱신형)'을 선보였다.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암을 비롯해 주요 질병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여성 다빈도 질병 치료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며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과 질병을 더욱 깊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전문보험을 선도하는 한화손해보험의 LIFEPLUS 페뎠테크연구소는 지난달 23일 이화의료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6월 업계 최초 페뎠테크연구소를 설립해 여성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양사 연구소는 여성 헬스케어 연구를 통해 여성이 신체적·사회적으로 직면한 여러 어려움 해결에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LIFEPLUS 연구소장은 "여성들의 수요에 대응한 상품·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잇따른 여성 시장 수요 공략에 대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페뎠테크 산업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페뎠테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17억 달러(약 28조원) 수준이던 글로벌 페뎠테크 시장규모는 연평균 15.6% 성장해 2027년에는 601억 달러(약 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페뎠테크 기술 발전으로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2030년경 페뎠테크 분야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약 1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페뎠테크 산업의 긍정적 성장 가능성 전망에 보험업계도 시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페뎠테크 관련 성장 전망을 보면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성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비씨카드

서울 학원 밀집도 강남 대치1동 '최고'

비씨카드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대치1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학원 업종 밀집도 조사

비씨카드 데이터사업부는 서울시 426곳 행정동의 학원 운영 밀집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 면적(100㎡)당 업종 밀집도를 산출했다. 행정동 내 전 가맹점을 업종별로 재분류했다. 밀집도가 50%인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학원 업종과 관련된 가맹점이란 의미다.

대치1동의 학원 업종 밀집도는 매년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0.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필리핀 여행객 대상 내달 26일까지 할인

신한카드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협업을 통해 필리핀 내 호캉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웨스틴 마닐라, 셰라톤 호텔 등 할인

신한카드는 연말까지 본보이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호캉스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여행객을 대상으로 내달 26일까지 단행한다. 같은달 31일까지 투숙하는 고객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한다. 스위트 객실 예약을 최대 15% 할인한다.

행사 호텔은 ▲웨스틴 마닐라 ▲마닐라 메리어트 호텔 ▲셰라톤 마닐라 호텔 ▲셰라톤 마닐라 베이 ▲클라크 메리어트 호텔 ▲셰라톤 세부 막탄 리조트 ▲코트야드 일로일로 등 7곳이다.



하나카드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증정 행사

하나카드가 연말 해외 여행객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 공항라운지 및 액티비티 상품 할인

하나카드는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및 액티비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증정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행사 응모 후 클럽 프리미어스 스카이패스 카드(마스터) 또는 클럽 프리미어스 포인트 카드(마스터)로 15만원 이상 결제 시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2매를 제공한다.

오는 23일까지 클룩(Klook)과 함께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액티비티 상품을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로 60달러 결제하면 최대 19달러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김정신 기자

DL이앤씨, 국내 첫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 준공

전남 구례 산동면 2347.63㎡ 부지 다락방 포함 지상 1층 74㎡ 26가구

DL이앤씨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이하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각 유닛(Unit)을 공장에서 사전에 생산한 뒤 이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최소화로 공기를 단축할 뿐만 아니라 균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사 과정에서 탄소와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분진과 소음이 적어 친환경 공법으로 주목받는다.

DL이앤씨가 준공한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는 연면적 2347.63㎡ 부지에 다락방을 포함한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74㎡의 26가구 규모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최근 준공 후 입주를 시작했다.



DL이앤씨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준공한 국내 최초의 '타운형 모듈러 단독주택 단지'.

/DL이앤씨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총 11개의 철골 모듈러 유닛을 조합해 하나의 주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 완벽한 단독주택을 구현했다. DL이앤씨는 2017년부터 모듈러 기술 개발에 들어가 40여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에는 '유닛 조합 설계'와 '무용접 커넥터', '무하지 외장 접합 시

스템' 등 자체 특허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이를 통해 국내 단독주택 환경에 맞는 모듈러 설계·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125% 개선했다.

기존 업계는 모듈러 운송부터 설치, 접합, 마감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로 하나의 유닛만을 활용해 소형 주택(원룸, 기숙사 등)을 제작하는 데

머물렀다.

이로 인해 모듈러 주택의 설계 및 상품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DL이앤씨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우수한 품질의 철골 모듈러 기반 단독주택 공급에 성공했다.

특히 누적된 노하우와 신기술을 활용해 유닛과 유닛을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3개), 화장실(2개), 주방, 거실, 다락, 세탁실, 베란다 등을 구성하고 단독주택의 넓은 평면을 살렸다.

DL이앤씨는 고객이 표준 모듈러 유닛을 마음대로 골라 원하는 평면을 계획할 수 있는 '멀티 커넥션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주방과 거실, 침실 등 고객이 원하는 유닛을 마치 레고처럼 선택하고 조립해 배치할 수 있다. 천룡이나 스과 같은 특별한 옵션도 고객 맞춤형으로 설치 가능해 모듈러 단독주택의 설계 상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우건설, 올해 ESG평가 'A등급' 획득

대우건설이 올해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작년보다 전방위적인 ESG경영을 추진한 결과로 올해 ESG평가의 환경(E) 분야는 B+에서 A+, 사회(S) 분야는 B+에서 A, 지배구조(G)는 B+에서 A로 상향된 등급을 획득했다. 전 영역 우수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등급 'A'를 받았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에서 ESG 평가를 하는 대표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

해 등급을 발표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인 TCFD 가입의 결 및 지지선언을 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인권경영현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공동서약식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인권규정을 제정했다.

/김대환 기자

농협銀 'NH올원뱅크' 신규 오픈 이벤트

혜택정보 PUSH 알림 동의해야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5가지 생활금융서비스 신규 오픈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서비스로는 ▲실시간 부동산·투자 뉴스를 소개하고 금융 상품을 연계하는 부동산 서비스 ▲국내외 경제이슈, 금융상식 등을 뉴스레터로 제공하는 머니레터 ▲소프트베리와 제휴해 지도 기반 실시간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차 서비스 ▲흠어져있던 나의

자산과 혜택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NH지갑 ▲게임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NH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올원플렛까지 총 5가지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이벤트 탭에서 혜택정보 PUSH 알림 동의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이 생활서비스에 방문하면 완료된다. 해당 고객 중 75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우1++ 선물세트(50명), 도미노피자(500명), NH포인트1만P(1000명), 카카오톡 이용권1만P(1000명), 다이소상품권5000원(5000명)을 제공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